

# 커피 로스터리의 관리 업무 함정: 수기로 관리하다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커피 로스터리의 관리 업무 함정: 수기로 관리하다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 목차

커피 로스터리의 관리 업무 함정: 수기로 관리하다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1
로스터리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비용	1
왜 기존 ERP는 커피 비즈니스에 쓰기 부족한가	2
로스터리와 기록 사이의 간극	2
커피 전문 시스템 연결(API)의 역할	3
시스템이 연동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3

# 커피 로스터리의 관리 업무 함정: 수기로 관리하다보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커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안에 생두 재고를 관리하고, 로스팅 데이터를 확인하고,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회계까지 정리해야 하죠. 문제는 각 업무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고, 그 사이를 모두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았고 결국 누군가가 수작업으로 직접 메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 낭비, 반복 작업, 잦은 실수, 그리고 끊임없는 업무 전환 비용은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같이 쌓이며 운영 비용에 누적됩니다.



## 로스터리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비용



많은 로스터리에서 '시스템 통합'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의 역할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엑셀과 시스템 사이를 오가며 데이터를 옮기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필요 없는 일을 수행하는 '데이터 연결 역할'에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업에 쓰이는 시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수작업 데이터 입력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8.2시간, 연간으로 따지면 5주 이상의 근무 시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작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일은 못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작업 데이터 입력은 5%의 오류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의사결정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데이터가 맞나?',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생산팀은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 왜 기존 ERP는 커피 비즈니스에 쓰기 부족한가

**YERP 시스템은 생두 1kg의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두가 농장에서 창고를 거쳐 로스터리에 도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ERP는 재무, 거래, 보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커피 비즈니스에서 그건 필요한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커피 비즈니스에는 산지 데이터, 로스팅 무게 손실률, 커피 점수와 같이 일반 ERP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없는 특수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생두와 원두 재고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물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커피 로스터리의 전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피가 생두에서 원두로, 원두에서 출하 상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단가, 금액, 거래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ERP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로스터리와 기록 사이의 간극

**로스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록되는 데이터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리스크입니다.**

내일 당장 내부 숫자를 맞춰봐야한다면, 원두 한 포대를 특정 생두까지 추적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커피 업체에서 솔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면, 재무팀과 생산팀은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재무팀은 숫자를 보고, 생산팀은 현장을 압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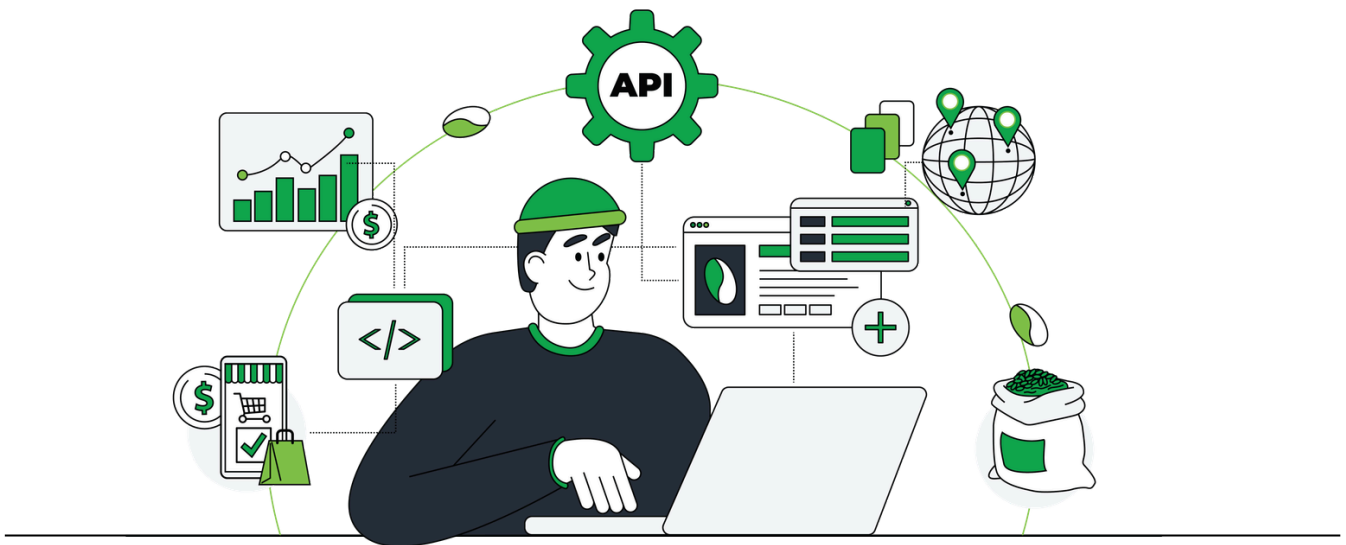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재고 데이터는 불안정해지고, 추적성은 수작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임시방편은 늘어나며, 오류와 시간 비용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 커피 전문 시스템 연결(API)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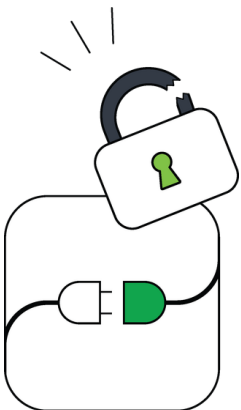
해결책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더 스마트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Cropster의 비즈니스 시스템 연결(API) 기능은 개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는 절대 수집할 수 없었던 커피 특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ropster API는 운영의 중심에서 생두 입고부터 주문 출하까지 전체 여정을 추적합니다. 재고, 품질, 로스팅, 위치, 이커머스 등 모든 커피 데이터가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수작업 없이, 사람이 중간에 끼지 않아도 됩니다.



## 시스템이 연동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된다면 팀내의 인력들은 데이터 입력 대신 커피 품질 관리와 가치 창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운영, 재무적 혜택도 직접적입니다.



- 데이터가 자동으로 실시간 흐르면서 재고 정확도 향상
- 모든 데이터가 추적되므로 비용 감사 및 재고 점검 간소화
- 모든 팀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해 빠르고 자신 있는 의사결정 가능



재무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작업 입력의 5% 오류율에서 오류 1건당 수정 비용은 평균 약 7만 원(\$53)입니다. 실제 오류 건수에 곱해보면, 그 비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는 수익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타격을 주는 비용입니다. 시스템이 연결되면 성장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실시간으로 구축된 커피 전용 데이터 시스템은 복잡성에 압도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연결이 필요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이 상태로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단절된 시스템으로 계속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운영적, 재무적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ERP는 중요합니다.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들은 입력되는 데이터 만큼만 잘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커피 기반 업무흐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전체 운영을 지원하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 로스팅 스케줄을 이커머스 및 ERP 시스템과 연결해 자동 주문 계획이 가능해진 것은 엄청난 효율 향상입니다. ”**

Amer Ba Shuaib, 생산 매니저, Camel Step



**Cropster 비즈니스 시스템 연결(API)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한국어가 가능한 크롭스터 영업팀이 안내해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API 정보 더보기\*\*](#)

## 원두부터 컵까지의 복잡성을 줄여 수익을 높이는 커피 생산성 플랫폼



### 크롭스터는 테크 기업입니다.

우리는 커피 산업과 기술 전문성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연결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커피 세상을 만듭니다.

모든 결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컵이 추적 가능하며 수익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물론 품질도 보장됩니다!